

나주~부산 2시간 시대 열린다... 2030년까지 국철 전철화

광주 송정~순천 간 단선 전철화... '나주혁신도시역' 신설 광주역~부전역 종점까지 2시간 21분대로 이동시간 단축

나주시가 국가철도망 건설로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철도공단 '광주 송정~순천 간 단선전철 철도건설사업'(2023~2030년)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에도 역사가 신설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1366억원을 투입해 광주역에서 출발해 광주송정역에서 나주(빛가람) 혁신도시를 거쳐 순천역까지 총연장 121.5km 구간 선로를 신설·개량하는 사업이다.

확정된 노선은 '광주역~광주송정역~나주혁신도시역(신설)~보성역~별곡역~순천역'이다. 총구간 중 89.2km는 단선전철로 신설하고 나

머지 32.3km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게 된다.

개통 예상 시점인 2030년 하반기엔 나주혁신도시역에서 기차를 타면 2시간 대에 부산역 도착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차·고속버스 편으로 나주에서 부산까지 최소 3시간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나주시외버스터미널이나 나주혁신도시 임시정류소에서 부산행 급행버스를 이용하면 약 3시간 40분에서 4시간 사이에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비교적 빠른 교통수단인 고속열차도 KTX나 주역에서 익산역과 오송역에서 2차례 환승한 후 부산역까지는 약 3시간 40분에서 4시간 가

까이 소요 된다.

하지만 광주송정~순천 간 철도 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경전선의 비전철 구간이었던 광주 송정에서 나주~순천 간 전철화 등 고속화 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지역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광주역에서 순천역까지는 기존 소요 시간인 152분에서 도착까지 52분으로 1시간 30분이 단축된다.

또 광주역에서 종점인 부전역까지 기존 5시간 45분에서 3시간 24분이 단축된 2시간 21분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전력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위치한 나주혁신도시는 기차역이 신설되면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에너지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야 인적·물적 네트워크 교류 확대와 복합 경제권인 남



해안 선벨트 구축에 따른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 송정~순천 간 국가 철도 건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오는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본격 착공한다"며 "오는 2030년 철도가 개통되면 영·호남 교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의용소방대원 대상 '치매파트너 교육' 추진

“치매 안심 사회 만드는 데 협조”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11일 담양군 의용소방대원 5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의미하며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 예방 캠페인 및 봉사 활동 참여, 배회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임시 보호 등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중천 담양군 의용소방대 회장은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담양의 치매 안전지킴이로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등 치매 안심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기관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담양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주민 모두 함께 하는 제1회 평생학습 박람회

평생학습 선포식·동아리 공연·체험활동 등 평생학습 성과공유 시간 가져

구례군은 지난 9일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구례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구례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기념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평생학습활동의 1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행사는 1,2부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행사에서는 개최식과 선포식,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활동 참여자들의 공연으로 우쿨렐레, G양상불 등 4개 팀

이 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간 학습으로 다져온 재능과 끼를 살리는 공연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압화 및 도자기 체험, 목재 및 매듭공예 체험, 세계놀이 문화체험 등 8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과 연계한 의미 있는 활동 시간을 가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이 평생학습도시로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미래를 향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성료

곡성군이 2023년 한방 양생 교실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전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건강증진 향상 및 한의약 건강관리법을 통해 건강생활실천 유도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참여자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대부분 좋은 편이다.

보건료원에서는 취약계층 주민과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중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해 한방 양생 운동 교실을 운영했다. 한방 양생 운동 교실 프로그램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됐고, 마지막 회차에는 한방삼푸 만들기 문화 체험 교실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만성 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운동 프로그램 전과 후 기초건강 기록지를 비교한 결과 대다수 참여자들이 통증 완화 및 건강 증진 효과를 경험했다.

또한 경로당 출입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 및 소외지역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군 삼계면, 주민과 함께 수국정원 조성

장성군 삼계면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와 함께 청사 주변에 수국정원을 조성했다.

화단 성토작업과 돌 쌓기 등은 가산식물원 노오석 대표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이어진 수국 식재작업은 자치위원회와 이장들이 팔 걷고 나섰다. 나무수국, 미드윈터 등 다양한 수종을 심어 만개 시의 모습을 기대케 했다. 개화 시기는 내년 여름 무렵으로 예상된다.

안보현 삼계면장은 “함께 땀 흘려 조성

한 수국정원이 행정복지센터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	